

프랑스의 타이어산업과 시장동향

업 무 부

1. 머릿말

이 기사는 최근 프랑스의 타이어, 특히 승용차용 및 상용차용 타이어부문의 동향과 전망에 대한 것으로서 1991년 12월에 같은 주제로 취급한바 있다.

2. 시장동향과 전망

(1) 개 환

프랑스는 독일에 이어 유럽에서 두번째로 큰 신차용 타이어시장이다. 그러나, 상용차용 타이어부문은 독일, 스페인보다 작고 영국, 이탈리아와 비슷하다.

교체용 타이어의 시장규모는 독일, 영국에 이어 유럽에서 세번째로 크다. 교체용 타이어시장에서의 승용차용 타이어 판매량은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압도적이다.

유럽의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프랑스의 타이어시장은 신차용이든 교체용이든 모두 심한 불황을 겪고 있다. 상용차용 타이어는 승용차용 타이어보다 더 나쁘고, 신차용 소

형트럭 타이어 시황은 최악의 상태에 있다.

(2) 신차용 타이어시장

① 승용차용 타이어

프랑스의 승용차 생산량은 1990년 이후 2년 연속 감소하였다가 1992년에 들어와 4.3% 증가하였다. 이는 PSA 등 다른 카메이커들의 생산이 저조하였지만 Renault의 생산이 11% 이상 신장하였기 때문이다.

1992년도 프랑스의 승용차 생산량은 330만대이며, 신차용 타이어 판매량은 1,283만개로서 전년대비 3.3%가 증가하였다. 자동차와 타이어의 수치가 맞지 않는 것은 자동차중에 KD수출이 있기 때문이다.

1993년도에는 자동차 생산량 감소에 따라 신차용 타이어 판매량도 줄어들었다. 1~9월기간의 승용차 생산량은 217만 8천대로서 전년동기대비 13.1%나 감소하였다. 한편 1993년도 상반기중 신차용 타이어 판매량은 613만 9천개로서 전년동기대비 14%나 감소하였다.

② 상용차용 타이어

1992년도에는 승용차 생산량이 증가한

것과는 달리 상용차 생산량은 오히려 감소하였다. 12월에 생산량이 증가하기는 하였지만, 연간생산량은 27,562대(5톤 이상)로서 15% 이상 줄었으며, 중장비차량은 더욱 심하였다. Renault VI 공장과 Heuliez 공장의 상용차 생산량은 27,324대로서 20%나 감소하였다. 버스 생산량은 5%가 증가한 2,578대였다.

1993년 1~9월중 상용차 생산량 감소는 더욱深化하여 소형트럭의 경우 전년동기대비 31%나 줄어든 21만 6천대였다. 1993년도 상반기중 신차용 소형트럭 타이어 판매량은 17만 2천개로서 이는 전년동기대비 37.8%나 감소한 것이다.

〈표 1〉 제조업체별 승용차 생산현황 (1988~1992)
(단위 : 1,000대)

연도 회사별	1988	1989	1990	1991	1992
Renault	1,385.0	1,446.7	1,316.9	1,351.6	1,504.1
Citroën	681.3	772.4	690.0	710.5	695.1
Peugeot	1,157.7	1,189.9	1,287.9	1,125.5	1,126.3
계	3,224.0	3,409.0	3,294.8	3,187.6	3,325.5

주 : 영국, 스페인, 벨기에에 있는 프랑스 자동차공장에서의 생산량 포함.

자료 : Comité des Constructeurs Francais d'Automobiles(CCFA)

〈표 2〉 종류별 상용차 생산현황 (1988~1992)
(단위 : 1,000대)

연도 종류별	1988	1989	1990	1991	1992
5톤 이하	430.5	464.4	436.6	386.6	407.8
5톤 이상	41.5	43.7	35.1	34.2	27.3
버스 등 ^①	2.4	2.7	2.5	2.4	2.6
계	474.5	50.8	474.2	423.2	437.7

주 : ① 도로건설용 트랙터 포함.

자료 : CCFA

1993년 1~9월중 대형상용차(5톤 GVW급 이상) 생산량은 16,557대로서 전년동기대비 22.3%나 감소하였으며, 1993년도 상

반기중 신차용 대형상용차 타이어 판매량은 12만 9천개로서 전년동기대비 25.2%가 줄었다. 제조업체별 승용차 생산현황은 〈표 1〉과 같다.

신차용 승용차 및 상용차 타이어 판매량은 〈표 3〉과 같다. 1991~1992년도 숫자는 SNCP(The Syndicat National du Caoutchouc et des Plastiques)의 것이고 다른 연도의 숫자는 EIU가 추정한 것이다.

〈표 3〉 신차용 타이어 판매현황(1988~1993)

(단위 : 1,000개, %)

연도 종류별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승용차용 타이어	12,590	13,385	13,725	12,421	12,830	8,127
	—	(6.3)	(2.5)	(−9.5)	(−3.2)	(−16.0)
소형트럭용 타이어	505	546	514	454	464	234
	—	(8.1)	(−5.9)	(−11.7)	(−2.2)	(−36.1)
트럭·버스용 타이어	406	434	396	359	296	180
	—	(−6.9)	(−8.8)	(−9.3)	(−17.5)	(−22.6)

주 : ① 1993년도 수치는 1~9월. ② ()안의 수치는 증감률.

자료 : SNCP, EIU.

(3) 교체용 타이어시장

① 승용차용 타이어

1992년도에 신차용 승용차 타이어 판매량은 증가하였지만, 교체용 승용차 타이어 판매량은 5.4%가 감소한 1,822만 3천개였다. 일반적으로 신차용과 교체용 타이어의 판매경향은 서로 상반되는데, 1993년도의 양상은 신차용이나 교체용 모두 부진하였다. 1993년도 상반기중 판매량은 947만 7천개로서 전년동기대비 22%가 감소하였다.

② 상용차용 타이어

상용차용 타이어중 소형트럭용 타이어의 1992년도 판매량은 111만 6천개로서 1991년도보다 1.7%가 감소하였는데, 이와같은 경향은 계속되어 1993년도 상반기에는 0.9

해외자료

% 감소하였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교체용 대형상용차 타이어 판매량은 1992년도에 2.5%가 감소하여 109만 6천개였던 것이 1993년도 상반기에는 16.8%로 감소율이 높아졌다.

〈표 4〉는 지난 5년간 1월중 자동차 판매량을 나타낸 것이다.

〈표 4〉 자동차 판매현황 (1989~1993)

(단위 : 1,000대)

종류 \ 연도	1989	1990	1991	1992	1993
승용차	22,520	23,010	23,550	23,810	24,020
상용차	4,505	4,680	4,840	4,950	4,971
버스	65	68	70	70	69
계	27,090	27,758	28,460	28,830	29,060

자료 : CCFA

〈표 5〉에는 교체용 타이어 판매량이 나타나 있는데, 〈표 3〉과 같이 1991년도와 1992년도의 자료는 SNCP의 것이다.

〈표 5〉 교체용 타이어 판매현황 (1988~1992)

(단위 : 1,000개, %)

종류 \ 연도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승용차용	19,292	17,820	17,529	19,254	18,223	14,025
타이어	-	(-7.6)	(-0.2)	(9.8)	(-5.4)	(0.9)
소형트럭	1,252	1,203	1,094	1,136	1,116	860
타이어	-	(-3.9)	(-9.1)	(3.8)	(-1.8)	(2.8)
트럭·버스용	1,262	1,019	1,156	1,124	1,096	738
타이어	-	(-19.3)	(13.4)	(-2.8)	(-2.5)	(-9.0)

주 : ① 1993년도 수치는 1~9월까지의 판매량

② ()안의 수치는 증감률.

자료 : SNCP

(4) 시장점유율

① 신차용 타이어시장

Michelin은 지난 3년간 거의 변동없이 신차용 타이어시장의 58%를 장악해왔다. 동사는 Citroën사에 타이어를 독점공급하

고 있다. 판매량으로 볼때 동사의 1992년도 매출은 3.4%가 감소하였는데, 이는 특히 상용차용 타이어 판매량이 급격히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승용차용 타이어 매출액은 오히려 5.7%가 증가하였다.

주로 Peugeot에 타이어를 납품하고 있는 Uniroyal과 Michelin의 자회사인 Kléber, Goodyear, Dunlop이 신차용 타이어시장의 8%를 점유하고 있으며, Renault 자동차회사에 주로 타이어를 공급하고 있는 Continental이 약간의 시장쉐어를 갖고 있다. 프랑스에 생산기반을 갖고 있지 않는 Pirelli도 약 3%의 시장쉐어를 갖고 있다.

〈표 6〉 회사별 신차용 타이어시장 점유율현황(1992)

(단위 : %)

회사별	점유율
Michelin	58.0
Bridgestone	-
Uniroyal	9.0
Dunlop	8.0
Goodyear	8.0
Kléber	8.0
Continental	6.0
Pirelli	3.0
기타	-
계	100.0

② 교체용 타이어시장

교체용 타이어시장도 Michelin이 장악하고 있지만, 시장점유율은 신차용 타이어시장보다는 낮다. 그리고, 다른 업체들도 마찬가지이지만 동유럽, 대만 등으로부터 경쟁제품이 들어와 시장점유율이 쇠퇴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주요 수입업체들로서는 Dipropneu, Vredesstein, Copadex, Trayal, Sonamia사가 있다. 수입품의 시장점유율은 7% 이상 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표 7) 회사별 교체용 타이어시장 점유율현황 (1992)

(단위 : %)

회사별	점유율
Michelin	45.0
Bridgestone	12.0
Uniroyal	5.5
Dunlop	8.0
Goodyear	8.0
Kléber	6.0
Continental	3.0
Pirelli	3.0
기타	10.5
계	100.0

자료 : ETU 추정.

(5) 판매조직

프랑스의 타이어 판매조직은 매우 복잡하여 분류하기가 어려우나 대체로 다음 3가지로 대별할 수 있다. 즉, 소매상, 제조업체, 자동차용품상들인데, 이들 그룹이 교체용 타이어 판매량의 약 30%를 각각 점유하고 있다. 자동차용품상들의 절반이 슈퍼마켓에 팔려 있고, 절반은 독자적인 영업활동을 하고 있다. 나머지 10%의 시장은 주로 자동차수리점이 약 3%, 주유소에서 약 5% 정도 판매되고 있다.

전통적으로 경쟁력을 갖고 있는 전문소매상(Pneumatiens)이 1,670개나 되는데 이들 중 350개는 제조업체가 소유하고 있거나 운영하고 있으며 472개는 소매체인점이다.

Michelin은 304개의 판매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158개는 Piot Pneu의 것이고 120개는 Central Pneu의 것이다. 그밖에 300여개의 독립소매상들이 Michelin과 판매계약을 맺고 있다.

Bridgestone의 판매망으로는 4개의 회사가 있다. 즉, Rhône-Alpes 지역에 6개의 판매점을 갖고 있는 Métifiot사, Carronni-er사, Marseille의 Gay Frères사, 그리고

북부 프랑스의 Maxi Pneu사가 그것이다.

체인은 3개가 과점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Euromaster가 약 20%, Vulcopneu가 약 18%, Arc-en-Ciel이 약 17%를 장악하고 있다.

(표 8) 타이어 판매조직(1992)

(단위 : %)

판매망	판매비율
판매대리점	29.0
제조업체	28.0
자동차용품 체인점	14.5
기타 자동차용품점	17.0
자동차수리점	3.0
슈퍼마켓	2.5
주유소	5.0
계	100.0

자료 : Le Journal de l'Automobile

3. 타이어 수입 및 수출현황

프랑스는 타이어 수출입에 있어서 수출이 수입의 2.5배나 되는 순수출국이다. 1992년도에 프랑스는 거의 4천만개에 달하는 승용차용 타이어를 수출하였는데, 이는 2,500만개를 수출한 일본보다 훨씬 많은 양이다. 트럭용 타이어 수출은 일본, 미국에 이어 3위이다.

수출물량의 상당부분은 프랑스에 있는 제조업체와 연계되어 있는 해외의 다국적기업이 수입하는 것이다. 이들 기업들은 생산의 합리화를 위하여 세계 각 공장의 생산제품을 전문화하는 경영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4. 타이어 생산현황

(1) 개요

프랑스는 유럽 최대의 타이어 생산국이자 미국, 일본에 이어 세계 3위의 타이어 생산국이다. 또한 프랑스에는 세계 최대의 타이

어 생산업체인 Michelin이 있다. Michelin은 세계 어느 지역보다도 프랑스 자국시장을 압도적으로 장악하고 있다.

Pirelli는 프랑스 국내에 공장을 갖고 있지 않으면서도 프랑스의 신차용 타이어시장에 발판을 갖고 있어 교체용 시장에서의 판매(특히 고성능 승용차용 타이어 부문)에도 유리하다.

〈표 9〉 승용차 및 상용차용 타이어 생산현황
(1988~1992)

		(단위 : 1,000개, %)				
종류	연도	1988	1989	1990	1991	1992
		승용차용	54,045	54,837	51,660	54,738
타이어	—	—	(1.5)	(-5.8)	(6.0)	(3.3)
	상용차용	5,801	6,083	5,858	5,799	5,952
타이어	—	—	(4.9)	(-3.7)	(-1.0)	(2.6)
	계	59,846	60,920	57,518	60,537	62,520
		—	(1.8)	(-5.6)	(5.2)	(3.3)

주 : ()안의 수치는 증감률.

자료 : IRSIG

(2) Michelin 그룹

Michelin은 그의 자회사인 Kléber SA의 공장까지 포함하여 프랑스내에 12개의 공장을 갖고 있는데, Clermont-Ferrand에 4개가 있고, 그 가운데는 최근에 신설된 공장도 하나 있다. Kléber는 Toul과 Troyes에 각각 1개의 공장을 갖고 있다.

Michelin은 다양한 규격의 타이어를 만들고 있는데, 특히 래디얼 타이어 개발의 선구자적 역할을 하고 있다. Clermont-Ferrand의 제4공장은 이 회사의 명성을 대표하는 것으로서 타이어 제조기술을 한 차원 높인 곳이다. 이 공장의 생산능력이나 세부사항은 Michelin의 다른 공장들과 마찬가지로 비밀에 싸여 있지만(Michelin은 기술개발특허까지도 비밀로 하려고 한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공장이 '파일로트 프

랜트'가 아니고 상업생산시설로서 공장규모와 근로자에 비하여 상당히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3) Continental SNC 및 Uniroyal Englebert SNC

독일 Hanover에 있는 Continental AG의 자회사가 프랑스에 2개가 있는데, 하나는 Continental SNC이고, 또 하나는 Uniroyal Englebert SNC이다. Uniroyal Englebert의 제일 큰 공장은 Clairoix에 있는데, 이 공장에서는 연간 약 600만개의 승용차용 타이어와 적은 양의 소형트럭용 타이어를 생산하고 있다. Sarreguemines의 Continental공장(트럭용 타이어 생산)은 1994년 중반까지 단계적으로 생산량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이 두 회사에서 생산한 제품의 판매는 La CUP SNC(Continental Uniroyal Products)가 맡고 있는데, 신차용 타이어시장에서 입은 판매손실을 교체용 타이어시장에서 만회하기 위하여 애쓰고 있다. 그래도 PSA와 Renault자동차회사의 거래비중은 이 회사로서는 상당히 크다.

(4) Bridgestone France SARL 및 Firestone France SA

Bridgestone France SARL과 Firestone France SA는 일본 Bridgestone사의 자회사로서 Bethune에 있는 Firestone 공장은 1일 24,000개의 생산능력을 갖고 있으며, 이 공장에서는 승용차 및 소형트럭용 타이어를 생산하고 있다. 동사는 또한 Lyon에 트럭용 재생타이어 공장도 갖고 있다.

(5) Goodyear SA

미국의 Goodyear사도 프랑스에 자회사를 갖고 있다. Goodyear SA의 본부는 Rueil-Malmaison에 있으며, 1일 20,000개

(표 10) 타이어 공장현황(1993)

공장명	타이어 종류 ^①	생산능력 (1,000개/일)	종업원수 (1,000명)
Michelin			
Gravanches	C		
Les Carmes	C, LCV, CV	6,725 ^②	16.5
Cataroux	C, LCV, OH, MC		
Usine No 4	C	—	5.0
Tours	C, CV	6,700 ^②	3.1
Cholet	C, LCV, CV	4,025 ^②	2.0
Monceau	C, CV, OH	3,000 ^②	1.3
Bourges	LCV, CV, OH, SP	3,545 ^②	1.7
Poitiers	CV	3,020 ^②	0.9
La Roche	CV	2,955 ^②	0.8
Roanne	C	1,625 ^②	0.6
Le Puy	OH	1,835 ^②	0.6
Kléber ^③			
Toul	C, LCV	—	0.8
Troyes	C, OH	—	1.2
Continental			
Sarreguemines	C, CV	15.0	0.9
Uniroyal-Englebert ^④			
Clairoix	C	24.0	1.5
Dunlop France ^⑤			
Montlucon	LCV, CV, MC, SP	7.0	0.9
Amiens	C	8.0	0.5
Goodyear			
Amiens	C, LCV, OH	20.0	1.5
Firestone ^⑥			
Béthune	C, LCV	21.8	1.4

주 : ① C=승용차용 타이어, LCV=소형트럭용 타이어, CV=트럭·버스용 타이어, OH=건설차량용 타이어(농업기계용 타이어 포함), MC=모터사이클용 타이어, SP=특별용도차량용 타이어(산업용, 항공기용, 경주용 포함),

② 톤/월 ③ Michelin 그룹 ④ Continental 그룹 ⑤ Sumitomo 그룹 ⑥ Bridgestone 그룹

자료 : European Rubber Journal, 업계 추정.

의 타이어 생산능력을 갖고 있다. 2년전 우리들이 조사할 때 종업원은 500명이었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1,500명으로 늘어났다.

Renault와 Peugeot자동차회사가 주요

신차용 타이어 거래선이고 Goodyear의 판매망을 통하여 교체용 타이어시장에도 판매를 하고 있다. 이 타이어를 취급하는 교체용 타이어 판매업체는 Norauto, Auto Service Casino, Bricauto와 Feu Vert 등이다.

(6) Dunlop France SA

한편 Dunlop France SA는 일본 Sumitomo사의 자회사이다. 이 회사는 프랑스내에 6개의 공장을 가동하고 있는데 타이어 및 자동차부품을 생산하고 있다. Amiens의 두 공장은 승용차용 타이어와 몰드를 만들고 있다. Montluon 공장에서도 여리가지 타이어를 생산하고 있는데, 이들 공장의 종업원은 1,600명이다. Dunlop은 트럭용 재생타이어 공장을 Riom에서 가동하고 있다.

Renault와 Peugeot자동차회사가 주요 거래선인데, 교체용 타이어 판매는 St-Ouen, Nancy, Lyon, Toulouse와 Marseille에 있는 하치장에서 소매상들에게 판매하고 있다.

5. 전망

(1) 경제전망

프랑스의 경제전망에 대해서는 EIU의 분석결과를 인용하고자 한다.

1993년 8월 ERM 위기가 최고조에 달하였을 때 프랑스 통화당국이 금리를 대폭 내리게 할 것이 기대되었으나, 그들은 단시일내에 성장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지 않았다. 오히려 가계의 실질가처분소득을 감소시킬 것으로 보았다. 1994년도 예산안에 비추어볼 때 가계의 실질가처분소득에는 변동이 없고 가계저축률만 12.8

%에서 12.2%로 낮아져 가계소비가 0.7% 늘어날 것으로 되어 있다.

지나치게 낙관적일지는 모르지만 실업률이 악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주부들이 가계지출을 줄일 것이므로 저축률이 감소하지 않을 수도 있다. 단기적으로 볼 때 수출수요의 증가나 경제전망을 다소 밝게 할는지는 모르겠지만 독일의 경기회복이 미지수이고 서유럽의 GDP 성장을 이 약 1%를 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중기적으로 본다면 유럽의 경제가 독일 주도하에 회복될 것이고 프랑스의 수출이 늘어나서 GDP는 2~3% 성장할 것이다. 가계저축률이 지속적으로 높아서 개인소비증가에 따른 국내 수요의 성장은 당분간 활발하지 못할 것이므로 3% 이상의 GDP 성장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2) 타이어시장 전망

① 신차용 타이어

신차용 타이어 판매는 자동차 생산과 비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EIU는 자동차 생산전망을 낮게 보았다. EIU에서 발간하는 季刊誌인 European Motor Business는 1993년도 프랑스의 승용차 생산량을 300만 대로 보았는데, 이는 1992년도 대비 9.8% 나 감소한 것이다.

그러나 1994년도에는 325만대로서 8.3%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1993년도의 상용차 생산량은 승용차 생산량보다 훨씬 더 감소하여 29.2% 나 감소하는 반면에

1994년도에는 38만대로서 22.6% 회복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② 교체용 타이어

한편 우리는 교체용 타이어 판매에 대하여 당초 우리의 전망을 하향수정한 바 있다. 최근의 동향으로 미루어 보아 1993년도 승용차용 타이어 판매량은 1,780만개 정도로서 1992년도 대비 2.2%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상용차용 타이어는 이보다 더 감소한 180만개 정도로 전망된다.

그러나 1994년도에는 신차용 타이어부문과 마찬가지로 교체용 타이어 판매량도 상당히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비록 경제성장과 소비자 지출증가율이 미약하겠지만 2년 간의 구매자제로 타이어 신규교체가 불가피할 것이고, 그동안 인하된 타이어나 자동차 부품의 가격이 수요를 촉진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3) 재생타이어산업 전망

이 연구서는 주로 신제 타이어의 수요공급에 대한 것으로, 트럭·버스용이 주시장인 재생타이어의 교체용 타이어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대략 10% 정도로 추산하고 있는데,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하면 높은 편이다.

생산업체는 30여개인데 주로 조그마한 공장을 갖고 제조·판매하는 소기업들이다. 그중에서 Laurent는 Michelin의 자회사이다.

자료 : EIU Rubber Trends 4th quarter 1993

번역 : 金 民/協會 業務部長

우리도로에는 우리나라 타이어